

# Issue in Focus

## 다이먼의 비트코인 경고에 대한 반론

JP모건의 CEO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미래부정적으로 전망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es Dimon) CEO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지난 17세기 네덜란드의 튜립광풍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튜립광풍은 400년전 네덜란드에서 명품 튜립의 사재기로 튜립의 가격이 집 값을 뛰어넘는 기현상이 벌어졌지만 결국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공황으로 이어진 사건을 말한다.

다이먼은 결국 비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트레이더를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월가의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군드라흐 역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조작이 더 쉽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제재 움직임 관찰. 월가 전문가들의 경고와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며 지난주 가상화폐 가격 급락

이처럼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잇따른 경고성 발언을 내놓자 각국도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중국의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 방안인 가상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ICO란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손인 중국의 ICO 금지 결정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중국내 가상화폐거래소 BTC차이나는 이달 말부터 모든 가상화폐 거래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BTC차이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금융위험 예방 노력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로 영업 잠정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마이닝 풀 업무는 계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ICO의 위험성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일본은 가상화폐가 현물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상화폐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올해들어 중국의 수요 증가와 일본에서의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들어 5배 이상 급등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에 부각되면서 상승하기도 했지만, 올해들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과거 툴립 파동에 빗대어 비판적으로 전망했지만, 비트코인과 툴립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 존재**

다이먼 JP모건 CEO는 과거 툴립파동의 사례를 들면서 비트코인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툴립파동과 오늘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급등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16세기 후반 툴립이 유행하자 네덜란드에서 툴립이 인기를 끌며 품종 개량이 이뤄지고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특히 귀족이나 상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었다. 과시욕이 특히 크게 작용했었다. 90년대의 IT버블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90년대 이후 인터넷이 소개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인터넷은 초유의 관심사였다. 곧 이어 야후를 비롯한 닷컴업체들이 등장해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IT 관련주는 급등했었다. 툴립파동과 비교해보면 툴립은 단순 투기성향이 강했지만 IT버블은 신산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지금 역시 4차산업,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상화폐의 인기가 과거 툴립파동처럼 빠른 시일 내에 사그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블록(block)은 거래 정보가 들어 있는 장부의 조각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은 디지털 정보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를 믿고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4년 3,000만달러에 불과했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내년에 3.2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이트그룹 조사자료 인용). 세계경제포럼 및 UN에서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핵심기술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한 블록체인의 기반이 될 가상화폐가 당장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을 자본유출 경로로 지목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그 동안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사하기도 했었다. 결국 중국 당국의 움직임들을 보면 중국당국은 비트코인의 존재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과연 가상화폐의 흥수 속에서 스스로 그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전문가들의 경고성 발언과 중국 인민은행의 규제로 인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

결국 월가 전문가의 경고성 발언과 중국 인민은행의 규제로 인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지난 주말에 낙폭을 만회했다. 통화로서 지위 획득을 시도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주요 통화의 M3와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게 낮은 수준이다. 시가총액과 주요 통화의 M3를 비교해보면 블록체인의 핵심기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의 규모가 과연 버블을 논할만큼 성장한 것인지 의아하다. 왜 가상화폐의 종류가 2,000개를 넘어섰고, 애플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대시(Dash)에 왜 투자했고,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은 EEA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새로운 변화를 너무 기존 가격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10월초에 '주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그 두번째 이야기'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